

[로병사의 이야기] (8)

# 전우들의 피로 물든 군복을 입고 정전협정의 날까지

—함미원조 마지막 전역에 참가했던 김만석의 이야기

1953년 7월, 함미원조전쟁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정전담판이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쌍방은 일부 핵심 문제에서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보다 유리한 담판 지위를 쟁취하고 연합군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인민군과 함께 대규모적인 진공전역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역이 바로 금성전역이다.

자욱한 포연과 총포의 울부짖음 속에서

1953년 7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지속된 금성전역은 함미원조전쟁의 최후의 대규모적인 전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전담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적인 전역이기도 했다.

이 최후의 치열한 전투에 19살의 젊은 전사 김만석도 54군 모 사의 전우들과 함께 투입되었다.

그때를 회상하는 그의 눈에는 절절한 감정이 담겨져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은 미군 비행기의 폭격으로 인해 번진 불빛으로 환했고 총포소리에 귀가 먹먹했지요. 나는 전우들과 함께 산등성이의 거대한 바위 돌 밑에 은폐해있었어요.”

갑자기 산을 날아넘어 폭탄 여러 발이 김만석과 전우들 앞에서 터졌다. 그 폭발로 앞에서 지휘하던 련 지도원이 머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여러 전우들도 쓰러졌다. 김만석과 다른 전우들의 웃고 얼굴도 사상자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우리는 전우들의 피로 물든 군복을 입고 그들의 유지를 받들고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용감히 싸웠어요.”라며 김만석로인은 그때의 가렬치절했던 장면을 추억한다.

그때 젊은 김만석의 마음속에는 승리에 대한 집념과 전우들의 희생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뿐이었다. 전장의 자욱한 포연과 끝없이 이어지는 총포의 울부짖음 속에서 그는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우들과 어깨 결고 끈기있게 싸워나갔고 결국 정전협정 체결을 맞이했다.

나라와 인민 위해 전장에 나간 외동아들

1934년 조선 함경북도 삼가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김만석은 어릴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두만강을 건너 화통현 역전 근처(현재의 화통시 역전거리)의 단결촌에 이사 왔다.

추위가 매섭던 1951년 12월, 화통중학교를 졸업한 17세의 김만석은 당과 국가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함미원조전쟁으로 달려나갔다. 당시 집에는 어머니만 홀로 남았지만 외동아들 김만석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해 입대했다. 그때 연변조선



71년전의 금성전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90세 고령의 김만석로인

족자치주 주장인 주덕해동지가 직접 동원했기에 젊은이들은 참전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단동에 도착한 김만석은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틈도 없이 전장에 투입되었다. 김만석은 처음에 모 군 무공대(武工隊)에 배속되어 조선에 나갔다가 병력 보충이 필요한 소속 부대를 따라 잠시 귀국해 정비와 훈련을 받았다. 그 후 모 군 정통련(政統連)에 배치되어 다시 전장에 파견되었고 1953년에는 54군 모 사에 배치되어 그의 마지막 전투인 금성전역에 참가하게 되었다. 금성전역에 파견된 그는 주로 부대 간부들의 통역일을 맡아했다.

그가 속해있던 54군은 전장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온 16군을 교대해 출전했다. 전쟁터에서는 이처럼 빈번한 부대 교체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 복잡한 전쟁 환경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방식은 전선의 지속적인 전투력을 보장했고 전쟁의 최종 승리에 토대를



자동차공장에서 근무하던 시절

다양놓았다.

김만석이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 고향 화통에 홀로 남은 어머니는 늘 외동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들의 안위를 걱정했다. 기차를 며칠씩 타야 당도하는 1,400리나 되는 먼길이지만 그는 두번이나 단동까지 아들을 보러 갔다. 1953년, 아들 소식이 간절했던 어머니가 단동으로 달려갔지만 그때는 김만석이 금성전역 전쟁터에 있다 보니 만나지 못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부대를 따라 귀국한 김만석은 1955년 2월까지 학습에 참가했다. 그때 어머니가 두번째로 단동을 찾아왔고 오매불망 그리던 상봉이 이루어졌다.

김만석은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어머니와의 만남은 3년여 만의 그리움과 미안함을 달래주었고 앞으로 어머니께 더 효도해야겠다는 다짐을 더 굳게 했었다.

1955년에 퇴역한 김만석은 수많은 전우들이 목숨 바쳐 바뀐 평화의 소중함을 더 간절히 느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다.

## 제 1 자동차공장의 '황소'

고향인 화통에 돌아온 21살 청년 김만석은 집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다. 1년 뒤, 함미원조 참전 경력이 있는 그는 촌에서 유일하게 당시 설립된 지 3년도 안되는 제 1 자동차공장에 추천받게 되었다.

김만석의 회억에 따르면 1956년 화통의 4명을 포함해 연변에서 총 22명이 제 1 자동차공장에 추천받았다고 한다.

그가 처음 공장에 배치받았을 때 제 1 자동차공장은 초창기다 보니 조건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새 일터에 적응해나갔다. 그는 제 1 자동차공장 주조공장 실험실에 배치되어 주로 분광분석, 화학분석 등 분석실험을 했다.

“당시 자동차공장은 조선족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참 재미있게 보냈어요.”라고 처음 공장에 들어와서 조선족들과 함께 보내던 시절을 회억했다.

실험실은 자동차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철강 원자재를 분석해야 하고 검사를 통해 합격된 원자재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자동차의 부품이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진다.

가장 책임감이 수요되는 중요한 일터에서 김만석은 능숙한 기술과 사업에 대한 고도로 되는 책임감으로 동료들과 함께 제 1 자동차공장 실험실의 품질 관문을 지켰다.

김만석은 제 1 자동차공장에 배치받은 첫해에 새 중국의 첫 트럭인 해방표 트럭의 출시를 지켜보았고 1958년에는 새 중국 첫 소형 자동차인 동풍도 자동차, 이듬해에는 공화국 창건 10돐을 맞으며 새 중국 첫 고급승용차인 홍기표 승용차 출시의 기쁨을 함께했다.

김만석의 부인 리옥금(86세)은 수십년을 제 1 자동차공장의 후근부 식당, 유휴지 등 부문에서 근무한 동료이다. 인터뷰 내내 옆에 앉아있던 리옥금은 “저분은 재직시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수십년을 일했어요. 몸이 아파도 나가고 집에 일이 있어도 나가고 정말 모범답게 일했습니다. 하여 공장에서 23년 연속 로력모범으로 뽑히면서 '황소'라는 별명까지 붙여졌지요. 그리고 제 1 자동차공장의 일터 기준병으로 당선되어 사진이 공장 영예판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자동차공장에서 근무하던 시절을 자랑스럽게 회억했다.

1993년, 37년간 근무한 실험실을 떠나 퇴직한 후 김만석은 제 1 자동차공장조선족로인협회에 가입하여 30여년째 협회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만년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

/ 유경봉 오진 정현관 기자



## 양로기구에서 공공의료봉사 받을 수 있어

의료 양로 결부 발전을 촉진해 로인들에게 량질적, 효과적, 실제적인 의료 양로 결부 발전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민정부 판공청, 국가중의약국 종합사, 국가질병예방통제국 종합사는 공동으로 <의료위생기구와 양로기구의 협의, 협력을 심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협의, 협력 내용, 안전, 기제, 모식 등 면의 요구를 제기했다.

협력 내용 면에서 통지는 기층을 중점으로 기층 의료위생기구와 양로기구의 협의, 협력 기제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수요가 있는 양로기구에서 소속 관할구의 사회구역위생봉사소(소), 향진위생원, 촌위생소 등 기층 의료위생기구와 연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협력을 전개한다.

기층 의료위생기구는 협의, 협력하는 양로기구 입주 로인들을 가정의사 계약봉사 범위에 넣고 기본공공 위생봉사와 기본의료봉사를 제공하며 협력된 원자재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자동차의 부품이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진다.

가장 책임감이 수요되는 중요한 일터에서 김만석은 능숙한 기술과 사업에 대한 고도로 되는 책임감으로 동료들과 함께 제 1 자동차공장 실험실의 품질 관문을 지켰다.

실정에 따라 의료위생기구와 양로기구의 다차원 협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합작 의향이 있는 양로기구에서 주동적으로 종합병원, 중의병원, 전문병원 등 기구와 연결해 협의, 협력하는 것을 지지한다. 양로기구에서 주년의 재활, 간호, 료양의료

위생기구와 우선 협의, 협력하는 것을 격려한다. 의료위생기구는 로년 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부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문 봉사를 제공하며 사회력량의 참여를 흡인하도록 한다.

통지는 또 위탁관리식 협의, 협력의 탐색을 제창하는바 양로기구에서 내설 의무실, 진료소 등 의료위생기구의 관리, 운영을 협의, 협력 의료 위생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각자의 의향과 명확한 권리 의무, 관련 법률책임, 분쟁 해결 방식에 부합되는 토대에서 쌍방은 위탁관리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안전 면에 대해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의료위생기구와 양로기구의 협의, 협력의 규범화를 강화해 안전한 봉사를 보장해야 한다. 의료위생기구와 양로기구는 법에 따라 협의, 협력을 진행하고 의료 위생기구는 상응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양로기구는 양로기구 등록을 해야 한다. 협의 의료 위생봉사를 제공하는 인원은 상응한 직업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 위생기구는 법에 따라 의사의 여러 기구 업무 지점 등록 등 사업을 잘해야 한다.

양로기구에서 공공의료봉사 받을 수 있어

## 왕청, 16개 로인 식당 동시 운영



일전, 왕청현에서는 16개 로인 식당을 동시에 운영해 전 현 로인들에게 따뜻함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왕청현민정국은 로인 식당 건설 목표를 강화하는 데 전력을 다했는바 목표를 16개로 정해 로인들을 배려하려는 결심과 강도를 충분히 보여 주었다. 대상의 순조로운 추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왕청현민정국은 112만원의 특별자금을 쟁취하여 로인 식당의 건설과 운영에 튼튼한 경제적 토대를 닦았다. 뿐만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업무방법을 혁신하고 '가복경로식당'(嘉福敬老食堂) 간판을 통일적으로 설계, 설치하여 독특한 특색이 있는 브랜드 형상으로 로인 식당의 판별도와 전체 형상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외에도 양로기구, 기관, 기업, 사업단위의 식당을 로인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창했다. 사회면의 료식기업과 협의하여 식사 창구와 전용구역을 증설하고 봉사 범위와 차원을 효과적으로 넓혔다.

로인 식사 지원봉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일부를 내고 기업이 일부를 양보하며 정부가 일부를 보충하고 집단이 일부는 추가하며 사회가 일부를 기부'하는 다원적인 자금 조달 기제를 구축하여 자금, 정책, 자원의 협력을 형성하고 로인 식사 봉사기구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봉사를 제공하도록 지지했다.

로인 식당의 운영은 독거로인과 고령로인들의 식사 난제를 효과적

으로 해결함으로써 식사문제로 인한 로인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많은 복지를 가져다주었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료리는 내용이 풍부하고 종류가 다양하다. 매일 영양 수요에 따라 정성껏 배합했기에 로인들의 음식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낮은바 연령에 따라 60세 이상 로인들의 식비는 10원, 60세 이하 인원들의 식비는 13~15원으로 더 많은 로인들이 실속이 있는 량질의 봉사를 누릴 수 있다.

가복경로식당에 들어서면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이 사람들을 더욱 친근하게 한다. 넓고 밝은 홀, 깔끔하게 배치된 식탁과 의자, 깨끗하고 깔끔한 식기... 곳곳에서 로인들을 위한 정성이 보여진다. 관련 사업일 군들은 식사를 하러 온 모든 로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음식을 소개한다. 로인들은 질서정연하게 음식을 그릇에 담아 오손도손 모여앉아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다. 현장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했다.

왕청현 16개 로인 식당의 동시 운영은 로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로인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더욱 향상시켰다. 왕청현에서는 계속해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리념을 견지하고 로인 식사 봉사 체계를 최적화하여 더 많은 로인들이 만년에 사회발전이 가져다주는 복리를 마음껏 누리게 할 방침이다.

/ 길림민정

## 개인양로금제도 전면 실시, 11 월말까지 7,279 만명 가입

12월 15일부터 개인양로금제도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11월말까지 총 7,279만명이 개인양로금에 가입했고 현재 각종 금융기구에서 출범하고 있는 개인양로금 상품은 823개에 달한다.

정책 실시 첫날부터 새로운 양로 보장 조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오전 9시 반, 산동성 제남시에 위치한 한 은행의 영업대칭에는 개인양로금 업무를 자문하러 온 시민들이 많았다.

제남 시민 류너사는 “양로금을 구매한 후 일정한 개인소득세 감면도 향수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최신 규정에 따르면 개인양로금은

금융상품, 저축예금, 상업양로보험, 공모기금외에 국채도 구매할 수 있다.

중국농업은행 제남력성지행 고객경리 장택혜의 소개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인수로 1만 7,000명의 예약을 받았으며 업무 처리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QR 코드 스캔을 통해 구좌를 개통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인양로금을 개통할까?

개인양로금은 개인구좌제를 실행하고 비용은 완전히 참가인 개인이 부담한다. 매년 납부하는 상한선은 1만 2,000원이고 월별, 회수, 년도별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세수 우대 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

참가인은 국가사회보험 공공봉사

플래트홈, 전자보장카드, 12333 APP 등 전국 통일 온라인 봉사 입구 혹은 규정에 부합되는 상업은행에서 개인양로금구좌를 개설하고 상업은행에서 개인양로금 자금지좌를 개설할 수 있다. 즉 개인양로금을 개통하려면 두개 구좌를 개설해야 하나 하나는 개인양로금구좌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양로금 자금지좌이다. 현재 상업은행을 통하여 한번에 이 2개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인양로금 투자 시 어떠한 위험에 주의해야 할까?

남개대학 금융발전연구원 원장 전리휘의 소개에 따르면 제테크 상품의 예기 수익과 위험은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파동이 비교적 완만하다.

저축 상품은 원금 수익이 보장되므로 '원금 보장' 수요가 있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화회기금 수석 책략분석사 현위는 “양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관리자의 전방위적인 종합형 실력을 수요한다. 양로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역시 양로 '돈주머니'를 불리는 것이므로 투자 연구 능력 건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부기금 수석 책략분석사 마진승은 “공모기금은 양로금융상품 관리자에서 양로금융구좌 관리자로의 변신을 수요한다. 감독관리 요구에 따라 투자 관리를 잘하여 규정에 맞는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CCTV 뉴스